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박기범* · 강민완** · 전용태***

〈목 차〉

Ⅰ. 서 론
Ⅱ. 이슬람원리주의
Ⅲ.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원인과 동향분석
Ⅳ. 중동지역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자세
Ⅴ. 결 론

〈요 약〉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장테러 단체들의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젠 올바른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풍토와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슬람원리주의에 따른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은 테러의 원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신 세계질서차원에서의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이슬람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간섭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 뿐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슬람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대테러 차원뿐만이 아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위기를 또 다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슬람, 이슬람 원리주의, 중동, 테러리즘】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제1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제2공동저자)

Ⅰ. 서 론

9.11세계무역센터 테러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공으로 중동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로서 여전히 끊임없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의 위협이 되는 테러의 주범을 색출하고자 표방했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패권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까지 이러한 무모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테러에 있어 이슬람권 전체를 두려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라크에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2001년 9.11테러 이후 각국의 대테러 활동으로 잠시 테러가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2003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반미·반서방 테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이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만이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세계 석유 시장의 중심지인 중동에서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날로 치솟는 고유가의 세계시장 속에서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동지역에서의 한국의 경제적인 자구책 노력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그 동안 중동지역은 한국 건설업체들의 주요한 달러벌이의 전투기지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던 중동 지역을 우린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서만 인식을 해 왔을 뿐 더 이상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 나라와의 공생공존의 상대로서는 생각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가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일방적인 미국과 서구의 채널 속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이분법적인 사고와 이념만이 교육되어져 왔고, 더구나 우리사회의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사실상 많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채 세계화속에서 방치되어져 왔다. 테러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혈맹관계 속에서 이슬람권과의 관계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제적 관점만으로 단순히 아랍세계와 이슬람 문화를 표면적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손주영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 교수는 "서방 언론들은 이슬람을 반(反)서방적이고, 비타협적이고, 폭력과 테러를 교리 안에서 용인하는 종교로 묘사하고, 비(非)이슬람 세계를 성전(지하드)을 통해 정복하

려고 하는 호전적 종교로 다뤄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슬람이 유대교, 기독교와 공통되는 평화와 같은 이상과 가치들에 뿌리를 둔 종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슬람 부흥론자들 중에서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극소수인들이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일 중동지역에서 벌어지는 테러에 대해 막연한 공포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헌팅턴 교수에 의하면 2025년엔 전 세계 인구의 31%를 이슬람 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익차원에서의 중동지역 나라들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적 관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슬람 원리주의

1. 정의

이슬람원리주의 (Islamic fundamentalism)는 이슬람교에서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원래의 이슬람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서, 이슬람 교리를 정치·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아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슬람화운동을 말한다.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개혁운동, 이슬람정통주의라고도 한다. 코란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은 이미 9세기경 압바스왕조 시대부터 있었으나, 전통적이고 과격한 이슬람 신자들을 이슬람근본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40년 이후이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슬람원리주의라는 말로 자주 쓰인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부흥운동, 이슬람화운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은 서구 열강이 중근동에 진출한 이후 전통 이슬람이 외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부패·무능하여 이슬람 세계의 파탄을 가져온 데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그 처음은 와하브파의 순수 이슬람 정신을 계승한 1920년대 말의 무슬림형제단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슬람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가 1950~60년대에 일시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팔레비왕조를 타도한 호메이니의 이란혁명으로 다시 크게 부각되

었다.

이후 근본주의자들은 현재의 세속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헌법으로 삼는 이슬람공화국의 창설을 최대 목표로 하며, 초대 이슬람교의 순결한 정신과 도덕 회복을 위해서는 코란과 순나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리주의자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신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고 반(反)외세, 특히 서구적인 정치사상과 사회제도를 경원시하여 이를 배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란의 시아파가 주축이 되었고 다수인 수니파 일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18세기말부터 시작된 서구의 식민 제국주의는 이슬람 세계의 분열과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조류가 양립하였는데, 하나는 이슬람 근본원리와 신앙에 입각해 사회와 종교를 정화하고 지키려는 수구적인 이슬람 보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문명을 과감히 수용하자는 혁신주의이다. 전자는 서구에 대한 거부와 회피 현상으로서, 식민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항복이나 반역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현대식 서구 교육을 이슬람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수구적 이슬람 전통주의는 이슬람원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후에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은 조직의 목적과 운동 방향 때문에 여러 분파로 갈라졌지만, 이슬람의 근본원리와 율법을 토대로 한 정교일치의 국가를 수립하고, 정통적인 이슬람의 생활규범을 복원한다는 기본적,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손주영, 1997).

이슬람원리주의자(Fundamentalist)라는 용어는, 1920년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 가운데 과격한 일파를 지칭한데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미국의 신교파의 일파로서 성경의 창조설을 확신하고 진화설을 전적으로 배격하였는데, 성경을 복음이자 유일한 권위서로 믿고 신앙생활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현대 신학 뿐만 아니라 문화의 세속화 동향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기독교도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변화에 정면도전도 사양치 않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과는 구별된다(김정위, 1993).

1940년대에 들어와서 전통적인데다 과격한 회교도를 이슬람 원리주의자(Islamic Funda- mentalist)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소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자신이 스스로 이름 붙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非이슬람세계, 특히 영어권에서 이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이외에도 이슬람 급진주의자(Islamic Radicalists), 이슬람 개혁주의자(Islamic Reformis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는 정작 무슬림 세계에서는 아랍어로 우술리야(usuliyyah)라는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요즈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이슬람 부흥운동(nahdah; 부흥,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2. 등장배경

7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탄생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해온 것은 전통적 이슬람(Traditional Islam)이며, 이는 역사나 정치에 있어서 이슬람의 주된 흐름이었다. 종교적인 신앙을 초월해서 '전통적 이슬람'은 사회질서이며 인생철학이고, 경제원리 체계인 동시에 또 통치방법인 것이다. 이슬람은 개인을 위한 종교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슬람을 공동문화유산으로 생각하는 아랍인들은 지난날의 위대한 이슬람 문화를 창조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이슬람 세계는 구조적 성격을 띤 위기를 맞는다. 새로 혁신된 서구의 과학, 기술, 사상제도와 맞부딪힌 이슬람 세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다. 과학 · 기술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슬림들은 이슬람 문화가 기독교나 유럽문화보다 본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슬람 세계의 참상을 확인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초기의 순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랍사회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슬람의 후진성은 서구사회와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것이며, 서구열강과 내부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아랍인들이 꿈꾸는 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실현되지 못한 채 외부의 문화가 아랍사회의 이슬람 문화보다 우세한 것을 보면서, 아랍인들의 감정은 민감해졌다. 이 민감성이 아랍 민족주의로 변신하고, 이어서 강력한 아랍 민족주의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변신한 것이다.

사실 1960년대만 해도 국제무대에서 이슬람의 영향은 미미했으며, 이슬람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복고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그 후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강화되면서 리비아와 파키스탄에서 이슬람법이 강화 적용되고, 이집트와 터키에서 과격단체들이 출현하며, 1979년 이

란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키는 등 이슬람 원리주의 활동은 세력을 확장하고 활동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아랍민족에게 반서구적 ·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싹트게 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 확장을 야기한 동기와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아랍 국가들의 경제사정 악화
② 고유문화의 황폐화
③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교육확대
④ 이슬람 원리주의가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 등장
⑤ 이스라엘 건국으로 인한 반 이스라엘 · 반서구 감정
⑥ 서구식 경제 ·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
⑦ 근대사에서 당한 쓰라린 식민지통치경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전통적 이슬람이 부패 무능하여 무슬림 사회가 쇠퇴 · 몰락하자, 이를 재생, 부흥해야 하겠다는 개혁차원에서 18세기 중엽에 무슬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곧 구미열강의 중근동 진출 이후 외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슬림 국가 대부분이 구미열강의 식민지, 반식민지 또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 사회적 파탄을 가져오게 되자 이 운동은 더욱 강화되었다(김정위, 1994).

물론 그 구호는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이다. 즉 이슬람의 원점인 코란에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코란에 입각하여 해석상 하자가 없으면 이슬람적이어서 수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역시 이슬람 역사상 유사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본래로 돌아가는 것'과 '시대적 상황의 요청'을 조화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그 현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흥주의, 개혁주의 및 급진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적으로는 18세기 이후에 등장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고 있다.

3. 역사적 전개

초기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서 일어난 '와하비 운동'과 리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사누시 운동'이다.

현 세대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의 출현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확장과 이슬람 사회의 몰락과 식민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원리주의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문제는 어떻게 무너져가는 이슬람 사회와 국가,

종교와 문화를 구제하고 개혁 하는가 이였다.

1928년에 Hasan al-Banna가 이집트에서 이슬람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1941년에 Mawlana Abl Ala Mawdudi가 인도에서 Islamic Society를 설립했다.

1960년대 이전까지 이슬람 원리주의는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정인 성격을 띠지만, 1960년대 이후 그 성격이 크게 변했다. 온건주의를 버리고 투쟁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집트의 Sayyid Qutb는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이슬람 운동의 창시자였다. 그는 그 당시의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의 이상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모든 무슬림들은 선봉부대를 조직하고 성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Qutb는 기존 사회제도에 대항하는 이슬람 운동을 펼쳤다. 원리주의자들은 기존의 이슬람의 통치자는 서구나 동구 이해관계의 대리인이고 마찰의 희생자라고 생각했기에,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슬람 국가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없었고 무슬림의 이해를 보호해 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리주의자들은 기존의 제도를 뒤엎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슬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슬람 원리주의의 출현은 이슬람 사회의 외적인 압력과 내적인 위기에 의한 직접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의 변화는 그 압력과 위기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자기성찰과 자기구제의 운동이었다. 다른 문명에서의 개선 노력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의 유일한 차이점은 신앙과 급진적인 방법을 통한 호소였다는 점이다.

4. 이슬람 원리주의의 변화

첫째,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이다.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자, 단체, 조직들은 납치, 암살, 폭파 등을 동원한 맹렬한 전쟁을 기존 권위(정부)에 대항해 펼치고 있다.

둘째, 온건한 이슬람 원리주의이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에 대한 참을성은 잃었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들은 자선단체 등을 만들어 빈민층을 돕고, mosque(이슬람 사원)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기에,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어마어마한 기부를 받는 종교집단이었기에, 이 결과 정부의 기능은 약해졌고, 온건 이슬람 원리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셋째, 합법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지역적인 행정이나 의회

에 참여하길 원하며, 기존의 체제 아래서 그들의 이슬람 이상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중동 국가들에 있어 최대의 위협은 온건한, 또는 합법적인 이슬람 조직이다. 그들은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이슬람교도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건파나 합법적인 조직의 발전을 저지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만약 이슬람 국가들이 정치 정당이나 선거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승자는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전개

1979년 중동의 가장 서구화 된 석유부국 이란에서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이슬람 혁명이 성공했을 때, 서구는 경악하였다. 서민과 중산층을 껴안은 아래로부터의 이슬람 혁명은 50년에 걸친 근대화의 과정에서 빼앗긴 대중의 울분을 한꺼번에 풀어주었다. 그들은 조금 덜 가졌지만, 전보다 더 행복해 했다. 주인의식과 이슬람의 도덕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바탕 위에 꽃피는 첨단과학의 낙원을 그들은 꿈꾸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지난 18년간 서구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무역제재에도 그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빠른 템포의 서구화보다는 이슬람의 전통과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 사회를 선호하는 이러한 민중의 뜻을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정권의 많은 문제점과 경제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알제리는 독립 후에는 30년 가까이 군부에 의한 일당독재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전통과 고유한 이슬람 문화는 말살되고,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인화 되었다. 일당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는 급기야 1988년 시민폭동으로 연결되었고, 군부는 다당제의 도입과 자유로운 총선을 약속하였다. 이슬람의 회복을 갈구하는 대중들은 1991년 12월에 실시된 1차 자유총선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신생 '이슬람구국전선(FIS)'에 표를 몰아주었다. 이리하여 이슬람 세력은 430석 중 1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슬람 세력의 집권을 앞둔 시점에서 군부는 돌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선결과의 무효를 선언했다. 더구나 FIS는 불법정당으로 해산되었다. 이슬람식 정치를 표방하는 FIS의 집권은 서방과 알제리 군부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주와 인권을 그처럼 강조하던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도 독재군부를 두둔하면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민

주적 결과를 외면하였다. FIS와 그 추종자들은 분노하였고, 그 중 급진적인 세력은 '이슬람 무장단체(GIA)'를 결성해 반독재, 반서구 무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성향의 이슬람 부흥론자들의 약진은 아랍국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1978-1982년에 걸쳐 '무슬림 형제단'의 반정투쟁이 극렬하게 전개되었으나, 아사드 정권에 의해 잔혹하게 소탕 당하였다. 1981년의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도 '형제단'의 행위로 알려져 있다. 요르단에서도 1989년 4월의 총선에서 원리주의 세력이 의회 의석의 45%를 차지하여 주목을 끌었다. 더욱이 수단에서는 1989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국민이슬람전선'이 집권함으로써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슬람 원리주의 정권이 등장하였다. 이 외 튀니지에서도 1983년 식량폭동 이후 대량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한 때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나흐다'를 지지하여 기세가 등등했으나, 군부의 소탕으로 현재는 지하로 잠적해 있는 상태다.

원리주의 성향의 이슬람부흥운동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은 1990년대였다. 동유럽과 소련연방이 붕괴되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함께 서구 강대국들의 중동각국에 대한 침탈이 더욱 가속화 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무너진 사회주의의 축을 이슬람이 대신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노골화된 서구의 침략에 대한 이슬람세계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졌기 때문이었다.

6.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간의 역사적 대립관계.

<표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약사

시오니즘 (Zionism) (19세기 후반~)	중·동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33년까지 팔레스타인에 23만8000여명의 유태인이 모여들어 아랍인의 반발을 샀다.
밸포어 선언 (1917년 11월)	1차 대전 중 영국 외무장관 아서 J 밸포어(Balfour)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앞서 1916년 아랍 지도자들에게도 1차 대전 후 '아랍 독립국가' 수립을 약속했다.
유엔 결의 181호 (1947년 11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을 분할하여 유태 국가와 아랍국가를 창설하고, 예루살렘은 국제 신탁통치 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국가를 수립했으나 아랍인들은 이 결의를 거부했다.

6일 전쟁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를 핑계로) 이집트와 시리아 등에 대해 기습공격을 감행,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요르단의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시리아의 골란 고원 등을 점령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1967년 11월)	6일 전쟁 종결과 중동평화 수립을 위한 원칙으로,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교전상태 중지, 중동지역 모든 나라의 주권·영토 및 정치적 독립 존중, 난민문제의 정당한 해결 등을 결의했다.
10월 전쟁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선제공격을 가했으나 6일 전쟁 때 잃은 영토를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1979년 3월)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가 아랍국 중 최초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고, 양자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반환했다.
1차 인티파다 (intifada봉기) (1987년~1993년)	이스라엘 점령 20년을 맞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억압 통치에 대해 시민 불복종, 총파업, 이스라엘 제품 불매, 바리케이드 설치, 낙서·투석 등으로 저항하기 시작, 팔레스타인인 1000여명이 희생됐다.
오슬로 협정 (1993년 9월)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테러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가자지구와 예리코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5년 내 추가 철수 등을 규정한 협정에 서명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1996년 1월)	오슬로 협정의 결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의 선거로 팔레스타인 자치의회가 구성되고, 아라파트가 수반에 당선됐다.
2차 인티파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최종 지위 협상이 지연되고 이스라엘 강경파 지도자 샤론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살 폭탄 테러 등 극단적인 투쟁 방식으로 저항했고, 이스라엘은 무력진압에 나섰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1200여명, 이스라엘인 400여명 이상이 숨졌다.
미첼 보고서와 테닛 평화안 (2001년 5월~6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 팀이 폭력 중단, 신뢰회복, 협상재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휴전안을 마련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97호 (2002년 3월12일)	팔레스타인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 명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공존하는 비전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사우디 평화안 (2002년 3월28일)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 점령한 땅에서 철수하면 아랍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왕세제(王世弟)가 제안한 새로운 포괄적 평화안을 아랍 22개국 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선일보 2002, 재구성

1) 의미 및 영향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강경한 저항으로 촉발된 팔레스타인 분쟁은 민족, 영토, 종교, 분리 독립, 식민유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분쟁은 네 차례의 전쟁을 발생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영토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추방함으로써 이집트 이스라엘간 분쟁, 시리아와 이스라엘간 분쟁, 요르단과 이스라엘간 분쟁을 파생시켰고, 중동지역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에 의한 무장테러의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가 하면 이 분쟁은 당사자가 상호 실체와 공존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일방의 존재를 위해 다른 일방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과 자세를 고수하여 왔다는 점에서 당사자들끼리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지도 국가들의 객관적이고 진지하며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쟁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분쟁관리 및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과거 아랍 국가들은 이 분쟁의 과정에서 석유를 무기로 활용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인 석유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분쟁은 세계경제의 장래에도 엄청난 영향을 파급시킬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사실 중동지역에서의 석유 보유량은 전 세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석유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분쟁의 귀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향후 전망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원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국가간에는 상호 실체 인정과 공존을 사실상 원치 않는데 있다. 이는 3000년 이상 지속된 양측의 뿌리 깊은 역사적 반목과 종교적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동 분쟁은 항상 아랍대 이스라엘의 국제적 분쟁이 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은 이스라엘에 대해 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국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스라엘과 전쟁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1999년 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내부 문제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서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인 요르단강 서안의 이양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원리주의자와 이스라엘 정부에 퍼져 있는 강경주의자들도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과 협상을 원하는 세력, 독립국가의 즉각적인 선포를 주장하는 세력, 이스라엘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하마스 등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결국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통일된 국론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방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어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하마스가 온건파인 파타당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 손을 잡고 정책적 변화를 꾀하거나 내부 강경파의 무력투쟁 노선을 포기시키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번에 강경파 설득에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하마스 정권 붕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2006년 6월 29일자, 경향신문).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와의 무력충돌이 범위를 넓혀가며 중동 전체에 전운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제 촉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강경한 대응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중동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거부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는 폭력 사태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아랍 정부들의 개혁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주목할 현상은 1950년대나 60년대의 사고(思考)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이란을 포함한 중동 세계의 문제는 이스라엘, 미국, 서방에 의해 생겼으며, 완전한 승리는 실용주의나 화해, 경제발전이 아닌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범아랍 민족주의자가 아닌 이슬람주의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중동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로서 끊이지 않는 테러의 중심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Ⅲ. 중동지역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동향분석

1. 중동지역 및 이슬람 국가분포

중동(中東)은 모로코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이란 및 때때로 그 이외의 지역으로 펼쳐지는 지중해 남부 및 동부 해안 주변의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지역의 중심부는 과거에는 오리엔트(Orient)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려했던 현대의 서구 지리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근동으로 불려졌다. 이 당시 근동은 지중해로부터 페르시아만(The Persian Gulf) 까지 확대되는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였고, 중동은 그 만(灣)으로부터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는 지역, 극동은 태평양에 면하는 지역을 각각 지칭하였다. 용어의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집트의 영국군 사령부에 쓰여 졌을 때인 전쟁기간 동안에 중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Encyclopaedia Britannica, 1996).

중동이라는 용어는 본래 19세기 영국에서 극동(極東; Far East)과 근동(近東; Near East)의 중간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서 생겨난 지역적 개념이다. 이 당시 근동은 그리스, 불가리아, 레반트(Levant), 이집트 등의 국가를 말하며, 중동은 동양의 중심부로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및 페르시아 서부 국경 이동(以東)의 미얀마, 실론에 이르는 지역을 일컬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이집트에 중동 사령부(Middle East Command)를 설치함에 따라 오늘날 보편화된 명칭이다. 그 결과 과거의 근동지역이 오늘날 중동의 중심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홍성민, 1991).

중동에 속하는 국가는 이집트 · 터키 · 시리아 · 레바논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 요르단 · 이라크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쿠웨이트 · 바레인 · 카타르 · 아랍에미리트 · 오만 · 예멘 · 사이프러스 등이며, 크레시 · 피셔 같은 학자들은 여기에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슬람세계란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나라와 무슬림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나라(아랍세계 포함)의 집합을 의미한다. 현재 이슬람 세계에는 이슬람 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OIC) 소속 56개 국가(약 13억 명)가 포함되어 있다.

이슬람세계에는 아랍세계 22개국과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아제르바이잔 · 방글라데시 · 브루나이 · 부르키나파소 · 카메룬 · 차드 · 코모로 · 가봉 · 감비아 · 기니비사

우 · 기니 · 가이아나 · 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말리 · 모잠비크 · 니제르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수리남 · 이란 · 타지키스탄 ·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 우간다 · 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이슬람 국가들은 주로 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슬람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빈국에 속하며,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제3세계 민족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2.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원인

이슬람과 서구의 대결을 지울 수 없는 운명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은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표결이었다. 그 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여 아랍과 유대 두 개의 독립국가로 분할하자는 안이 통과되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였다. 당초 아랍인이 중심이 되는 팔레스타인 연방안이 우세했으나, 미국의 집요한 제3세계 회유 작전으로 결국 연방안 대신분할 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인구비에서 아랍인의 3/1, 전체면적의 7%만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전역의 56%를 분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경작 가능한 대부분의 땅은 유대인 차지가 되어 있었다. 2천년동안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 온 아랍인으로서는 이주해 온 유대인을 모두 받아들이는 연방안 자체에 아랍인들은 거센 반발을 하였다. 지난 2천 년간 조상의 피와 땀이 맺힌 불모의 땅을 겨우 경작지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빼앗기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에 행했던 미국의 실체와 역할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반미 정서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유엔 총회 표결을 앞두고도 한 손에 무기, 한 손에 옥수수를 들고 국고에 현금 몇 천불도 없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신생독립국들을 상대로 한 표 한 표를 매수했다. 오랜 피식민지의 처절한 경험과 빼앗긴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생국들도 돈과 무력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념적 연대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권의 유지와 생존의 문제였다.

3. 중동테러리즘의 동향

90년대에는 민족주의 및 분리 독립에 기인한 테러가 빈발한 가운데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인 시기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알카에다와 그 추종세력들이 미 9.11 테러 등을 자행하면서 이슬람 과격세력에 의한 반미 · 반서방 테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90년대 초 동 · 서 냉전 종식으로 극좌테러가 감소한 대신 러시아, 유고 등 세계 각지에서 소수민족 분리 독립 요구가 분출하고,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종전의 좌익이념에 기인한 테러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94년 영국 · 이스라엘 등 유럽 · 중동지역 분쟁국가에서 평화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테러사건이 일시 감소하였다가, 95년 이후 다시 민족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가 확산추세를 보였다. 97년 이후에는 민족주의 테러가 감소하고, 알카에다 등에 의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가 현재까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 서방국에 대한 테러를 선언(98.2)한 이후 전 세계 이슬람 동조세력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이 본격화되고, 각국의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으로 테러가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2003년 이라크전(3.20~5.1)를 계기로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이라크를 지하드(성전)의 새로운 전초기지로 삼아 반미 · 반서방 테러를 강화하면서 2004년 한 해 동안 이라크에서만 전체 테러사건(988건)의 절반이 넘는 581건(59%)을 기록하였다.

4. 중동 테러조직 현황 및 분석

<표 2> 세계테러조직현황

지역	테러조직단체 수
아프리카	104
동중 아시아	20
동유럽	44
남미/카리브해	110
중동/페르시아만	184

북미	57
남아시아	131
남동아시아/오세아니아	45
서유럽	270
합계	965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2006.

서유럽 다음으로 중동/페르시아만에서 활동 중인 테러조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라크 지역에서의 무장테러단체에 의한 자살폭탄테러로 인해 군인이나 경찰에 비해 민간인에 대한 희생이 가장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세계적 테러리즘 성향 및 조직

테러성향	주요테러조직	사건 및 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이슬람, 사라피스트, 아브사야프, 알카에다, 탈레반, 팔레스타인 하마스, 회교지하드, 제마이슬라미야 등	132건 26%	309건 38%	556건 56%
민족주의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모하지르 민족운동, 부룬디 민족해방군, 우간다 신의 해방군, 영국아일랜드 공화국, 체첸반군, 이라크 민족주의 등	93건 19%	216건 27%	297건 30%
극좌	마오이스트, 콜럼비아 무장혁명군, 붉은 여단, 필리핀 신인민군, 페루의 빛나는 길 등	56건 11%	146건 8%	74건 7.4%
극우	콜럼비아 연합자위군, 앙골라 와전독립연합, 북아일랜드 얼스터 바위협회 등	4건 1%	7건 1%	2건 0.2%
기타	불명	212건 43%	131건 16%	54건 5.4%
총계	2002년 26개 조직. 2003년 38개 조직, 2004년 26개 조직	497건	809건	988건

국정원, 테러정세, 2004 재구성.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는 총 556건 2006중 487건이 이라크에서 발생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 자르카위」 등 외부 유입 테러조직들이 치안 및 정정불안 조성을 목적으로 미군·연합군 및 이라크 임시정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격화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과 이슬람 과격세력의 활동이 활발한 필리

핀 등지에서 빈발했다(국정원, 2006).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한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가 전체 세계 테러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반미·반서방을 표방하는 이들 테러집단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로 인해 전 세계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표 4> 아랍권 무장조직들

테러조직	조직구성	내 용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	미국 테러 대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국제적 테러리스트 조직 '알 카에다' 이외에도, 아랍권에는 많은 급진 이슬람 조직들이 반 미국, 반 이스라엘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테러에서 이들 무장조직이 연합해 공동전선을 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마스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	80년대 반 이스라엘 투쟁을 주도했던 연합단체 '무슬림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도자 Sheik Ahmad Yasin이 1987년 말 창설한 원리주의 조직.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병원과 학교 등을 지어주는 등의 활동을 벌여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협상을 반대하며,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완전한 이슬람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자살 테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신은 2004년 3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
이슬람 지하드	(하산 알반나) 무슬림형제단	1980년 이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된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무장조직. 본부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으며, 시리아와 이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하드 역시 이스라엘 멸망과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의 창설을 꿈꾸고 있다.
헤즈볼라	이슬람교 시아파	'신의 당'이라는 뜻으로, 이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노선에 영향을 받아 1983년 레바논에 시아파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2000년 5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가장 활발한 무장투쟁을 벌였다. 조직원이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동 최대의 테러리스트 조직이지만, 레바논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진 테러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군이 군사훈련과 종교교육, 물자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사령부 차량폭탄 공격, 1992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공격 등 많은 반미 테러를 수행했다.
팔레스타인 해방민주전	마르크스주의 테러단체	이번 미국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곧 부인했다. 1969년 조직된 마르크스

선 (DFLP)		주의 테러조직으로 1988년 팔레스타인 최초로 조직화된 군사행동을 펼쳐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거점 공격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은 물론, 왕정제 폐지 등 중동지역 공산혁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동이 미미해 98년 미 국무부의 관찰대상 테러리스트 조직에서 제외됐다.
이슬람무장그룹(GIA)	이슬람 과격단체	이 밖에 알제리의 은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납치해 목을 자르는 테러행위로 악명을 떨쳤으며, 빈 라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이슬람그룹(IG)은 1997년 이집트의 대표적 관광지 룩소르에서 58명의 외국인 여행객을 살해했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친미 정권을 축출하고 이슬람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무자헤딘	이슬람사회주의 무장단체	'성스러운 전사'를 뜻하며 모자헤딘/ 무자헤딘 이라고도 한다. 무자헤딘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 소련군에 대항. 무자헤딘 내부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등 종파가 서로 대립/갈등으로 내부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북부동맹의 경우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는데 동조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서방 세계를 향한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지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새로운 양상의 테러수법을 이용하여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고 있다. 여전히 오사마 빈 라덴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알카에다의 또 다른 테러수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젠 테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가장 강력한 테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중동/페르시아 만 국가별 테러 발생 현황(1968~2005년)

국가	사건 수	부상자	사망자
Bahrain	15	9	13
Iran	122	342	80
Iraq	3,428	15,174	9,399
Israel	866	7,327	1,432
Jordan	85	133	92
Kuwait	45	190	34
Lebanon	663	2,112	1,276
Persian Gulf	1	0	0
Qatar	2	17	2
Saudi Arabia	61	1,660	310

Syria	21	334	143
Trucial Oman States	1	3	4
Turkey	1,158	2,033	521
United Arab Emirates	9	1	4
West Bank/Gaza	1,996	1,606	561
Yemen	120	283	114
합계	8,593	31,224	13,985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2006.

이라크와 레바논에서의 테러 발생 건수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은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무력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민간인에 대한 테러가 중동지역에서의 반미, 반서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자살폭탄테러의 지역별현황

지역별	이스라엘	이라크	터키	체첸/러시아	스리랑카	카슈미르/인도	기타
사건 수	120	36	16	14	23	5	25
합계	49%	16%	7%	6%	10%	2%	10%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2006.

자살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 내에서의 팔레스타인들이나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의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의 자살폭탄테러는 종파 간 종교적 갈등과 미군에 대한 보복성격의 미군에 동조하는 공무원 및 경찰들에 대한 자살폭탄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살폭탄테러에는 나이어린 소년이나 소녀들이 이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Ⅳ. 중동지역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경제적 측면

이슬람 문화권은 전 세계 56개국 약 13~16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대단히 넓은 문화권이다. 제 2의 중동 붐을 예견하며 세계적으로 이슬람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들의 이야기로만 치부되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체들이 이슬람권에 나가고 있는 요즈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슬람권에 대한 연구는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무슬림(이슬람교 신자) 근로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문제이다. 국가경제측면에서도 이슬람권과의 교류확대는 새로운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필수요소이다. 즉 21세기 국가 경쟁에서 이슬람권에 대한 이해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2. 정치적 측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력침공과 관련해 레바논의 라말 대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땅을 무단으로 점령해놓고 이에 대한 '저항'행위를 '테러'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헤즈볼라의 '저항'은 합법이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바로 '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테러단체인 헤즈볼라의 2명의 이스라엘군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적인 레바논 공습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1만1천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6년 7월 26일자).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이슬람세계에 관한 한 매사에 지나치리만큼 비판적이고 폄하적인 서구 언론을 통해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사회의 사정을 접해온 우리는 이슬람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우

리 역시도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행한 반일본적 형태의 행위들이 일본에 의해 서구열강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제적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국제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3. 전략적 측면

미군사안보전문가 바넷은 한국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세계 통합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구(舊) 핵심 국가들보다 더 중시해야 할 신(新) 핵심 국가로 꼽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나라들이 이라크 재편에 의해 촉발된 중동 변환(transformation)에 합류하거나, 개별 산유국과 에너지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의 논리"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5, 11월, 07일자).

자원 확보가 미래의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중동 산유국들과의 다각적인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과 일본과의 마찰을 고려해 중동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적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V. 결 론

이슬람식이 아닌 변화를 타락으로 보는 이슬람의 문화적, 윤리적 우월감이 아직은 강렬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그들 자신이 서구와의 접촉에서 느꼈던 것은 착취와 부도덕뿐이었다는 과거 역사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아직은 이슬람 사회에 만연하다. 이러한 역사적 응어리는 현실적 좌절감과 합쳐지면서 종종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가 과대 포장하는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구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이슬람화 운동은 오늘날 서방언론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결국 전체 무슬림들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원리주의자이고 그들의 대부분이 응징되어야 할 위험한 존재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슬람 세계 침략의 정당성을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많은 무슬림들은 믿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풍토와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편견과 이데올로기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세계화라는 절대 절명의 명제를 강조하면서도 서구 언론의 일방적 정보만을 취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수용한다면 그로 인한 무지와 위험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이슬람은 아직도 생소하고, 이슬람은 위험하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들처럼 호전적인 사람들이란 이미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본질에 접근하는 태도로써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원유의 70%를 수입해오고, 해외건설시장의 주된 외화 소득원이며, 1970년대 중동 특수로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경제적 논리는 제쳐두고라도 13~16억 인구수의 56개국에 달하는 아랍-이슬람권을 끌어안지 못하는 세계화란 결국 반쪽 세계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남의 문화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와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편견 없는 시각을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슬람원리주의에 따른 중동테러리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은 테러의 원인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 의한 신 세계질서차원에서의 이분법적인 기준에 이슬람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간섭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 뿐이며,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슬람 관련 국가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테러 차원뿐만이 아닌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이슬람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위기를 또 다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올바른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더더욱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세계화 전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숙, 이민용(2002). 『테러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공일주(1999). 『아랍문화의 이해』. 서울: 대한교과서.

금상문외(1999). "이슬람세계의 정치와 국제관계". 서울: 오름.

김정위(1993). 『이슬람원리주의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3집.

김정위(1994), 『이슬람원리주의 사상과 이론』. 서울: 민맥.

박기범(2002). 「테러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경호적 대응방안」. 용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버나드 루이스, 이희수 역(1998). 『중동의 역사』. 서울: 까치.

손주영(1997). "이집트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중동연구, 제16권 제2호.

이삼성(2001). 『세계와 미국:2-세기의 반성과 21세기의 전망』. 서울: 한길사.

이희수(19930. 『한-이슬람 교류사』. 서울: 문덕사.

장병옥(1993).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과 비아랍 무슬림 국가의 사회운동』. 한국 중동학회.

장병옥외(1994). 『국제 정치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 서울: 민맥.

정한유(1995). 『최근테러정세와 대책연구』. 대통령경호실, 연구발표사례집.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최재훈(2002).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연구』. 지중해 지역연구 제4권 제2호.

해밀턴 깁, 최진수, 이희수 역(1997). 『이슬람-그 역사적 고찰』. 주류성.

국가안전기획부(1990-1998). 『국제테러정세』.

경찰특공대(1997). 『대테러이론, 테러의 목적 및 국제테러사건 현황』.

윤지원(1995).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homsky, Noam(1999). "Fateful Triangle", South End Press, Cambridge, MA., (2001). "Rougue State", South End Press, Cambridge, MA.

Zinn, Howard, (199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alkin Agency, USA.

Huntington, Sam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Georges Borchardt, New York.

Kaplan, robert D.(1999). "The Ends of the Earth", Random House, New York.

Kennedy, Paul(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Random House, New York.

Malvina Halberstan(1988). "Terrorism on the high seas : the Achille Lauro Piracy and the IMO Convention on Mantune safety", A.J.L.L., vol. 82.

Mark V. Lonsdale(1995). "Specialized Tactical Training Unit", Los Angeles, California 90049.

Michael Akehurst(1982). "A Modern International to International Law", 4th ed, Sydeny : george Allen and Unwin.

Nye, Jr., Joseph S(200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Pearson Education, USA.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196, April 199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Wilkinson, Paul(1982). "Political Terrorism",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Young blood Rufus W, (1981). "20 Years in the Secret Service".

http://www.nic.or.kr

http://www.nis.go.kr

http://www.terrorism.or.kr

ABSTRACT

A Study on Understanding of Middle - East Terrorism : Focusing on Islamic Fundamentalism

Park, Gi Beom
Kang, Min Wan
Jun, Yong T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character of Islamic fundamentalism and Middle- East Terrorism.

The aim of Islamic fundamentalism is reconstruction of Ummah(Muslim Unity), thee early society of Muhammad's age. Islamic movement insist to restore the spirit of Islam and purify the society of Islam from the United State and Western world.

Now, Islamic fundamentalism movement as a new ideology, appeals to muslim in the world. The concept of modern national state from the Western countries do not accord with the traditional Islamic principles of reign and a spirit of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Islamic movement have no legitimacy in the system of modern state which govern the Arab world, regardless of the form of government. For this reasons, Islamic fundamentalist have an insecure position and their political activities.

It is yet far from their purpose, to reconstruct the muslim unity, to realize the Islamic political principle close to their practical methods. Yet Islamic fundamental movement have not overcome the system of secular state.

The Middle East terrorism supported by government might be eradicated by America's anti-terrorism policy. However, it will be serious and spread all over the world that the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U. S. and western countries is acted by militant warriors of Islamic fundamentalism, uniting Arab and Islamic people's emotions against America and western countries. There are some reasons that we need to focus on the Arab and Islamic fundamentalism. We need to get out of misunderstanding and discrimination about Islamic religion and culture from

America's and Western' standard Which are only their new world order. The discrimination of America and western nations against muslim could make other ideologies, opposite to the world peace.

There are a lot of foreign workers from Islam countries in Korea. We need to give consideration and attention to them for the our globalization and world peace. It is time to consider what to do for the nation's profit(economical, political, strategic)with right understanding. We are not safe and free from the terrorism yet.

【Key words : Islam, Islamic fundamentalism, Middle East, Terrorism】